

경관의 관광자원화 연구: 선정작업과 실제적 적용

Tourism Resource Strategy of Landscape: Procedure and Application

이정록 (전남대학교 지리학과, jrlee@chonnam.ac.kr)

손 일 (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, son56@pusan.ac.kr)

외국에서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'경치 또는 '경관(landscape)'을 가진 장소(view point, scenic view, panorama site)와 도로(scenic drive, scenic byway)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.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이 수려한 장소 및 구간을 관광명소로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. 전라남도 또한 수려한 해상과 내륙의 경관을 보유하고 있지만,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전남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을 진흥시키고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전남지역의 국도와 지방도 연변에 분포하는 '전망좋은 곳 (view-point)'과 도로 연변의 경치가 수려한 '경관도로(경치좋은 길: scenic drive)'를 발굴·선정하고 이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.

본 연구에서는 전남지역의 국도와 지방도 연변에서 주변의 경치가 좋고, 경관의 심미성과 의미성을 가진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해안경관, 산악경관, 수변경관, 농촌·취락경관, 문화경관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. 그리고 자동차로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연변에 펼쳐지는 경치·경관이 수려하거나, 독특한 인문적·자연적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선정하였다.

'전망좋은 곳' 및 '경치좋은 길'을 선정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. view-point 선정과정에서는 심미적 속성, 개발여건과 가능성, 접근성, 경관의 계절성 등 4개 지표를 이용하였고, scenic-drive의 평가지표에는 심미성(독특성), 도로의 상태와 조건, 경관의 계절성 등 3개의 변수를 원용하였다. 전술한 방법에 의해 123개소의 view-point와 19개 구간의 scenic-drive를 발굴하였고, 유형별 「베스트 5」를 제시하였다.

본 연구는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고,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. 2003년 5월부터 전라남도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'경치좋은 곳'에 안내판을 설치하였고, '경관도로'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. 본 연구는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시론적 연구이다. 많은 지리학자들이 본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여 경관의 관광자원화 연구작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.